국내
마감시황

2026.3.27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과도한 우려 완화되며 낙폭 축소

트럼프 "이란 요청에 따라 에너지 시설 공격 10일간 중단" 선언
미국의 지상군 1만 명 투입 보도에 중동 사태 불확실성 지속

주요 지표 일간 변동

KOSPI	KOSDAQ	KOSPI200
5,438.87pt (-0.40%)	1,141.51pt (+0.43%)	805.19pt (-0.46%)
달러-원 환율	**韓 10년물 국채 금리**	**S&P500 선물**
1,507.40 원 (-0.6 원)	3.9150% (+5bp)	6,543.50pt (+0.28%)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주요 수급 동향

	KOSPI	KOSDAQ	KOSPI200 선물
개인	+27,124 억	+1,699 억	-1,970 억
외국인	-38,881 억	-2,326 억	-4,388 억
기관	+7,775 억	+507 억	+6,424 억

참고: 발간 시각 기준
자료: KRX

KEY DRIVER

- 금일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불안과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에 따라 하락 출발했으나, 장 후반 낙폭을 축소했습니다. 트럼프가 이란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 시설 공격을 4월 6일까지 열흘간 중단하겠다고 밝힌 동시에, 외신은 미국이 지상군 1만 명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,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은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. 구글의 '터보퀀트'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반도체주가 하락세를 보였으나, 과도한 우려라는 인식에 낙폭을 축소했습니다. 이날 KOSPI는 0.40% 내렸고, KOSDAQ은 0.43% 올랐습니다.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3.0조원, KOSDAQ은 약 12.4조원을 기록했습니다.(KRX 기준)
- 외국인은 KOSPI에서 3.9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. 외국인은 KOSPI에서 제약과 운송/창고 업종을 매수했고, 전기/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 한편, 기관은 KOSPI를 7천억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. 기관은 전기/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, 전기/가스와 보험 업종을 매도했습니다.
- 업종별로 살펴보면, 낙폭 과대 인식에 화장품, 게임, 유통 관련주가 반등했습니다. 증권주와 2차전지, 바이오 업종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반면, 외국인 매도세에 전력기기 업종이 하락했습니다. 조선 업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.
- 주요 종목 중에선 호텔신라(+13.11%), 코스맥스(+8.58%), 키움증권(+3.94%)이 올랐고, HD현대일렉트릭(-5.18%), 효성중공업(-6.43%), 삼성전기(-5.03%)가 내렸습니다.

Compliance Note

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삼성증권